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Ⅱ)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青銅俑)을 중심으로—

기전여자전문대학교 의상학과

전임강사 김민지

目 次

I. 서 론	III. 결론 및 제언
II. 청동용의 복식	1. 청동용의 제작 시기
1. 발양(髮樣)	2. 청동용의 제성격
2. 유(襦), 상(裳), 포(袍), 대(帶)	3. 제언
3. 운견(芸肩)	참고문헌
4. 소매주름	ABSTRACT
5. 리(履)	

I. 서 론

본 연구는 발해의 복식에 관한 문헌과 유물을 당시의 주변국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발해의 복식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시도로, 정효공주묘 벽화에 묘사된 12인의 복식 연구¹⁾에 이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青銅俑)의 복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발해시기의 유물로 보고되는 것 중 복식과 관련 유물이 상당수 있지만, 발굴된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채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다. 또, 사진으로만 공개되었거나 발굴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동용 역시 1984년 샤프쿠노프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²⁾된 이후 사진만이 몇 장 더 공개되었을 뿐 지

금까지 그 이상의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이 자료가 분명히 발해의 것으로 추정된다면 발해 복식을 연구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청동용은 연해주 추카노프카강 좌안(左岸)의 도축장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블라디보스톡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그림1 참조) 이 청동용을 샤프쿠노프는 '7-8세기 발해의 관리상'이라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³⁾ 첫째, 청동용의 발굴지인 추카노프카강 부근이 연해주 지역에서 후대의 문화층을 포함하지 않고 단일 층으로 형성된 발해 크拉斯키노 성지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청동용 역시 발해의 유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동용의 얼굴 모습, 옷 입은 모습, 머리 둑은 모양, 태도 등으로 볼 때 7-8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세째, 청동용의 손에 서

1) 김민지·이순원,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정효공주묘 벽화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生活科學研究」 제18권, 1993. 6., pp.53-63.

2) E. V. Shavkunov 저, 송기호 역, "沿海州의 발해문화 유적", 『白山學報』 第30.31合號, 1985, pp.470-476.

3) E. V. Shavkunov 저, 앞논문, pp.465-467., p.470.



〈그림1〉 청동용(青銅俑)의 전(前), 후(後), 좌(左), 우면(右面) 사진

류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 청동용의 직분을 관리로 본다.

그러나, 이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 근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동용의 '7-8세기 발해의 관리상'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식을 비롯한 외관을 주변국의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동용의 제작시기 및 성별(性別), 신분, 연령(흔인여부) 등 청동용의 제성격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을 살펴봄으로써 발양을 통한 청동용의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될 것이다.

① 청동용의 발양

청동용의 두발은 좌우 두 갈래로 나뉜 뒤, 다시 각각 상하로 나뉘어 윗부분은 양쪽 머리의 정수리에서 두개의 작은 고리(小環)를 만들어 묶고, 아랫부분은 양 귀의 뒷부분에서 묶어 상의의 깃에 살짝 닿는 정도의 길이로 드리워져 있는데, 아랫

II. 청동용의 복식

1. 발양(髮樣)

발양은 의복에 앞서 상하, 연령, 존비, 귀천, 친소(親疏), 형제간의 서열, 혼인여부 등을 분별케 하는 수단이었으며, 고대인들은 신(神)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상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의복이 문화, 발달된 오늘날까지도 발양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

우선 주변국의 회화자료로부터 유사한 발양을 고찰하여 청동용의 발양을 좀 더 세밀히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발양을 한 인물들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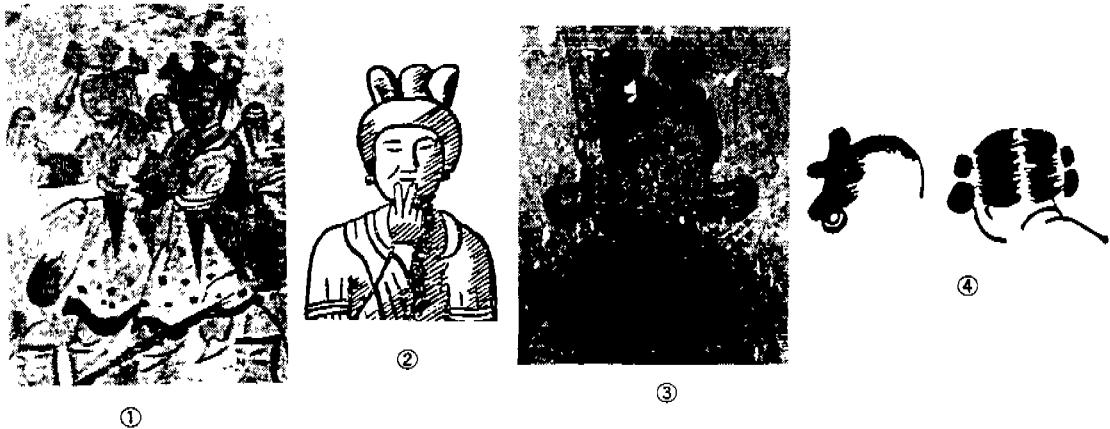


〈그림2〉 청동용(青銅俑)의 두부(頭部) 측면 사진

부분이 둑글고 두툼한 것으로 보아 환(鬟)인 듯하다.(그림2 참조) 이는 쌍계(雙髻)에 속하며 기본적인 발양이 다소 복합된 형식이다.

쌍계는 머리를 양쪽으로 벗는 형식을 말한다.⁴⁾ 좁은 의미로는 상투(髻)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투가 둘인 것을 쌍계라 하는데, 상투가 셋이면 삼계(三髻)라 한다. 상투가 넷이 되면 사계(四髻)라 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두발을 둘로 나눈 후 다시 각각을 둘로 나누어 뮤게 되므로 쌍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3 참조) 쌍계에 속

하는 발양으로는 아계(丫髻; 丫頭, 鴉頭), 아환(丫鬟; 丫環, 鴉鬟), 쌍아계(雙丫髻; 雙鬟丫, 雙角髻, 雙童髻, 縱角), 쌍수계(雙垂髻), 쌍수환계(雙垂鬟髻; 雙鬟後垂), 쌍환고계(雙鬟高髻), 쌍환망선계(雙鬟望仙髻), 관계(冠髻; 冠髮) 등이 있다. 이들 명칭은 아직 정립된 것이 아니며, 학자에 따라서 이론(異論)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기준의 설명들을 모아 정리해 보는 것도 청동용의 발양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림3〉 ①, ② : 삼계(三髻), ③, ④ : 사계(四髻)

출처 : ①『高句麗古墳壁畫』22, 안악 제3호분 헹렬도(4세기 중엽)

②『中國古代服飾史』p.253. 五代 王建墓 浮雕 女樂像

③『隋唐文化』p.282. 甘肅 敦煌石窟 17窟 北壁 西側 侍女圖

④『中國古代服飾史』p.504. 清 光緒年間 以後의 髮飾 中

아계(丫髻)는 아두(丫頭, 鴉頭)라고도 하며 정상에서 두 개의 작은 상투를 맺은 것으로, 그 모양이 나무 가지 丫形과 서로 닮았다 하여 이름지어졌다.⁵⁾

아환(丫鬟; 丫環, 鴉鬟)은 두발을 좌우로 갈라 그리모양(環狀)으로 벗어 드리운 형태다.

아계와 아환의 차이는 대략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계는 실심(實心)의 발계(髮

髻)이고 아환은 공심(空心)의 발환(髮環)인 점, 둘째, 아계는 대개 두발의 정상에서 높이 치솟고 아환은 귀즈음에서 드리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째, 이 두 발식이 연령의 차이를 표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어릴 때에는 아계를 위주로 하고, 성년이후에는 아환으로 고쳐 벗었으며 출가할 날이 되면, 다시 발환을 짊은 부인의 상투로 고쳐 벗는데, 만일 결혼할 연령이 이미

4) 쌍계에 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헌은 없다. 연구자마다 달리 쓰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쌍계를 “양 갈래로 벗는 형식의 종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5) 周汎,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學林出版社 / 三聯書店(香港) 有限公司, 1991, p.36.

지났는데도 출가하지 않으면 환으로 빗을 수는 있으나, 계로 빗을 수는 없었다.⁶⁾

“아두(丫頭)”, “아환(丫鬟)”은 머리모양 혹은 헤어스타일(Hair Style)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계집종, 젊은 여자를 칭하는 상징적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 사해(辭海)에서 “아두(丫頭)”는 “i) 나무가지 모양의 쌍계로 빗은 여아, 즉 여아를 칭한다. ii) 계집종(婢女), iii) 나이든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아환(丫鬟)”은 “계집종(婢女)”으로 정의되어 있다.⁷⁾ 周峰도 “아환, 아두는 노예주 혹은 귀족 통치 계급이 쌍아계(雙丫髻), 쌍각계(雙角髻), 쌍수환계(雙垂鬟髻) 등의 발양을 한 시녀(侍女), 비사(婢使) 혹은 소녀를 칭한 말⁸⁾이라 하였으며, 周汎, 高春明은 “아두(丫頭)는 ‘아두(鵝頭)’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계집종(婢女)을 가리키며, 연장자가 젊은 부녀를 친근히 부르는 애칭이다.”라 하였다.⁹⁾ 이와같이 귀족 통치계급은 “쌍아계(雙丫髻)”, “쌍각계(雙角髻)”, “쌍수환계(雙垂鬟髻)” 등의 발양을 한 여아, 소녀, 젊은 청년부녀(미혼녀), 계집종 등을 “아두(丫頭)”, “아환(丫鬟)”으로 호칭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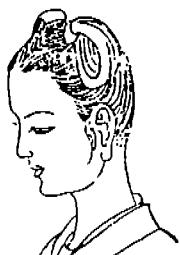
쌍아계(雙丫髻), 쌍계아(雙髻丫), 쌍각계(雙角髻), 쌍동계(雙童髻), 총각(總角)은 같은 발양을 의미한다. 정수리의 양 가에서 각각 하나의 작은 상투(小髻)를 만든 형상¹⁰⁾으로, 쌍계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아두가 쌍아계를 한 여아, 여종, 젊은 부녀 등을 칭한 용어임에 비해 쌍아계, 쌍계아, 쌍각계, 쌍동계, 총각 등은 발양 자체를 의미한다.(그림4)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4〉 쌍아계(쌍계아, 쌍각계, 쌍동계, 총각)

출처 : ①, ②, ③『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p.453.

④『中國歷代婦女裝飾』p.37 江蘇 揚州邗江揚廟 唐墓出土 陶俑

⑤, ⑥『中國歷代婦女裝飾』p.38 江蘇 揚州城 東林莊 唐墓出土 陶俑

쌍수계(雙垂髻)는 두발 양측의 계를 양 살찌이나 뒷머리의 아래로 드리운 머리모양을 말하며, (그림5) 환(環)을 만들어 드리우는 경우, 쌍수환계(雙垂鬟髻)라 한다.¹¹⁾(그림6, 그림11)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의 쌍계한 인물은(그림5-③, ①) 양쪽 뒤에서 끌어 아래로 드리운 쌍수계를 하고 있으며, 머리 길이로 보아 동복(童僕)으로 보인다.

6) 周汎, 高春明, 앞 책,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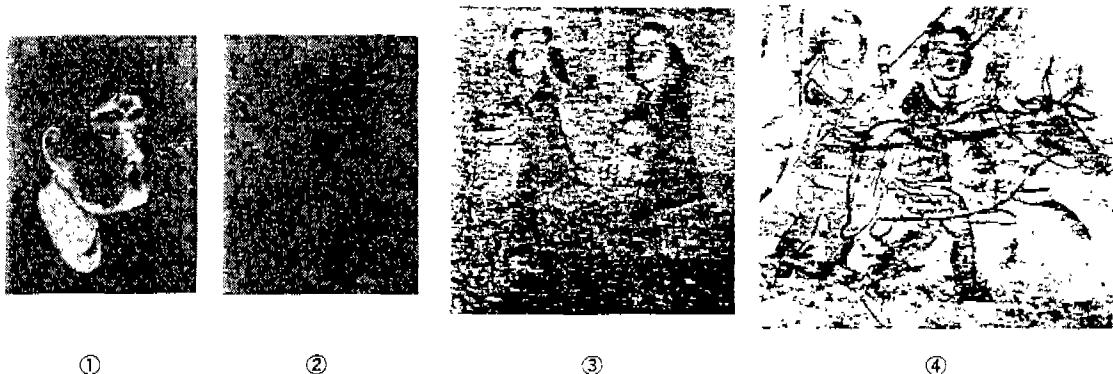
7) 『辭海』, 中華書局(香港)有限公司 上海辭書出版社, 1989, p.718.

8) 周峰 編,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北京燕山出版社, 1988, p.492.

9) 周汎, 高春明, 앞 책, p.36.

10) 周峰 編, 앞 책, p.436.

11) 周峰 編, 앞 책, p.441.



〈그림5〉 쌍수계(雙垂髻)

출처 : ①, ②『中國歷代婦女裝飾』p.41
③, ④『高句麗古墳壁畫』78, 85 덕흥리 고분벽화(AD.408)

가운데를 비계 하여 고리모양(環)으로 만든 것을 환(鬟)이라 하며, 환의 형식에는 고(高), 저(低), 장(長), 단(短)의 여러 방식이 있어 고환(高鬟), 저환(低鬟), 장환(長鬟), 단환(短鬟), 소환(小鬟), 대환(大鬟), 쌍환(雙鬟), 운환(雲鬟), 원환(圓鬟), 동심환(同心鬟), 수환(垂鬟) 등이 있었다. 환은 정상에서 빗은 것, 뒷머리 아래로 드리운

것, 양 뺨 위에 드리운 것 등 꾸민 위치도 다양했을 뿐 아니라, 환의 수도 증가하여 팔환계(八鬟髻) 등 지나치게 큰 계식(髻飾)에까지 이르렀다. 그림6-①, ②와 같이 양 살恻에 드리운 환은 저환(低鬟)¹²⁾이고, 그림6-③, ④의 쌍수환계는 쌍환수후(雙鬟垂後)¹³⁾라고도 한다. 이러한 쌍환의 발양들은 모두 미혼을 상징한 풍속이었다.¹⁴⁾



〈그림6〉 쌍수환계(雙垂鬟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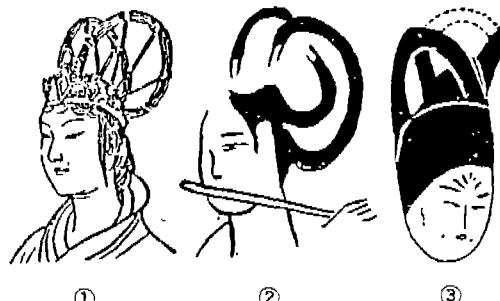
출처 : ①, ④『中國古代服飾史』p.227.
②, ③『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p.454.

1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 中國戲劇出版社, 1986, p.219.

13) 周錫保, 앞 책, p.219.

14) 周峰 編, 앞 책, p.442.

쌍환고계(雙鬟高髻)는 두발을 올려 말아 두개의 발환(髮鬟)을 정상에 우뚝 세운 형식이다.¹⁵⁾ (그림7) 쌍수환계나 쌍환고계를 할 때, 종종 제비꼬리 모양으로 남은 두발을 양 살짝에 드리웠는데, 속칭 “수소(垂鬆)”라 하였다.¹⁶⁾ (그림7-① 참조)



<그림7> 쌍환고계(雙鬟高髻)

출처 : ①『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p.452.
②, ③『中國古代服飾史』p.227.

쌍환망선계(雙鬟望仙髻)는 두발을 두갈래로 나누어 끈으로 환(鬟)을 속박하여 머리 정상에 치솟게 한 “신선(仙)을 우러러 바라보는 형상”(그림8)으로, 당초(唐初) 고종(高宗)의 궁(宮)내에 이미 있었고, 상류층에서 유행한 것을 하류층에서 모방하여, 성당(盛唐) 시기에 널리 유행하였다.¹⁷⁾ 이 쌍환고계와 쌍환망선계는 학자에 따라 명칭에 이견(異見)이 있어, 周錫保는 周峰이 명한 쌍환고계(그림7)를 쌍환망선계로, 쌍환망선계(그림8)를 쌍계(雙髻), 쌍라계(雙螺髻)라 하였고,¹⁸⁾ 原田淑人은 위에서 고찰한 쌍아계를 쌍환망선계로 보았으나,¹⁹⁾ 본 연구에서는 周峰²⁰⁾과 李廷芝²¹⁾의 견해를 따랐다.



<그림8> 쌍환망선계(雙鬟望仙髻)

출처 : ①『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p.451.
②, ③『中國古代服飾史』p.207. 唐 永泰公主墓
壁畫

관계(弁髻 ; 冊髮)는 발형이 “弁”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두발의 가운데를 갈라 양측에 각각 하나의 계를 묶고, 각 계 중 몇 가닥을 남겨 자연스럽게 드리워 장식하는 것이다.(그림9) 이는 춘추시기 남녀아동의 발양이었을 뿐 아니라, 당대(唐代)에 이미 여복(女僕), 시비(侍婢)의 통용발양이었다.²²⁾



<그림9> 관계(弁髻)

출처 : ①『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p.455.
②『唐代の服飾』第二編 圖版二三 2

15) 周峰 編, 앞 책, p.436.

16) 周峰 編, 앞 책, p.436, 443.

17) 周峰 編, 앞 책, p.433.

18) 周錫保, 앞 책, p.206, 207, 218, 226, 227.

19)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東洋文庫, 昭和45年, p.86, 234.

20) 주 15와 같음.

21) 李廷芝 主編,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p.274.

22) 周峰 編, 앞 책, p.445-446.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청동용의 발양은 크게 쌍계에 속하며, 사계(四髻), 쌍수환계(雙垂鬟髻), 관계(帷髻) 등이 복합된 것으로 보아야겠다. 즉, 두발이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 뒤, 다시 각각이 상하로 나뉘어 윗부분은 환(鬟)의 가운데를 묶어 두개의 소환(小鬟)이 있고, 아랫부분은 양 귀 뒤에서 환으로 묶어 드리운 관계(帷髻) 형태의 쌍수환계(雙垂鬟髻)이면서 상투(髻) 수로는 사계(四髻)가 된다.

② 쌍계(雙髻)의 시대적 변천 양식

쌍계가 어느 때부터 유행되었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하남(河南) 낙양(洛陽) 출토의 상대(商代) 옥조형상(玉雕形象)을 보면 쌍아계를 한 것이 있어, 이 머리모양이 상대(商代) 혹은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³⁾ 그후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동위, 은, 송, 유풍, 남북조, 수, 당, 오대, 명, 청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회화자료에서 다양한 쌍계의 모습이 발견되며,(그림10)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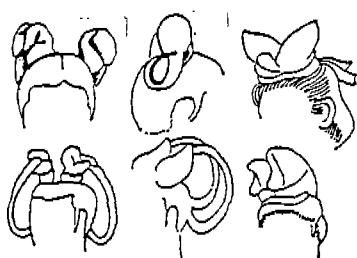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그림10> 각 시대별 다양한 쌍계의 모습

① 東魏 ② 宋 ③ 六朝 ④ 南北朝 ⑤ 北魏 ⑥ 隋 ⑦ 唐 ⑧ 明 ⑨ 清

23) 周峰 編, 앞 책, p.436.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전국, 진한시대에는 부녀의 쌍환은 목뒤, 혹은 등에서 많이 묶었으며, 환식(鬟飾)은 비교적 작고, 어떤 것은 중간에서 묶어 남은 머리를 수하한 “수소(垂髪)”라는 형식도 있었다. 목 뒤 혹은 등에 수환하는 것은 남북조시기의 발양이기도 하다. 당 염림본(閻立本)이 그린 〈열제도(列帝圖)〉 중 문제(文帝) 후측에 들어선 시녀의 모습(그림11)



〈그림11〉 열제도(列帝圖) 陳文帝 陳蒨
출처 :『古帝王圖』p.8.

에 발환(髮髻)이 양 귀 아래에 드리워지는 수계식(垂髪式)이 보이고 있어, 남조시기 이미 쌍수환계가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²⁴⁾ 쌍계와 쌍환이 혼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머리모양은 당대 유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남북조 이후 역대 시녀, 비복계총의 고정 발식이었고, 귀족 부녀는 쌍환을 머리 정상에 두고 고계식(高式)의 쌍환고계로 하여, 소즐(梳櫳), 잠(簪), 채(釵) 등으로 장식하여 귀천을 가리고 존비를 분별하였다.²⁵⁾

24) 화가가 당인의 양식에 의거해 그렸다는 설도 있다.

25) 周峰 編, 앞 책, p.442-443.

26) 周峰 編, 앞 책, p.445-446

27) 周錫保, 앞 책, p.163.

28) 『明史』卷六十七 志十三 輿服志

“洪武三年定制……小婢使、雙髻，長袖短衣、長裙”

29) 周汎, 高春明, 앞 책, p.37.

③ 쌍계(雙髻)의 상징적 의미

쌍계류로 빗는 습속에는 공통된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별(性別)

쌍계는 계집아이, 계집종, 사내종, 젊은 미혼녀, 궁중 시녀, 여악(女樂), 무기(舞伎), 남녀 아동의 발양이다. 대체적으로 여성의 계양이나, 어린 아이나 등복(童僕)의 경우 남자도 쌍계를 하였다.

나. 신분

춘추시기 관계(胤髻)는 남녀 아동의 일상적인 발양이었고,²⁶⁾ 남북조 시기 쌍계는 여악이나 시녀에게 널리 유행한 양식이었다.²⁷⁾ 고구려 덕흥리 벽화에 보이는 쌍계한 여인(그림5-③, ④)의 직분도 시종이고, 수(隋), 당(唐), 오대(五代)의 회화자료에 근거해 보면 여복(女僕), 시비(侍婢), 무기(舞伎), 악기(樂伎), 소녀의 통용발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明) 홍무 3년(洪武三 : A.D.1370년)에는 제도를 정해 소비(小婢)로 하여금 쌍계를 하도록 하였다.²⁸⁾

이상의 기록과 회화자료로 쌍계를 한 인물들의 직분을 고찰한 결과 아동, 종, 궁중 시녀, 악기, 무기 등으로 파악되었다.

다. 연령 및 혼인여부

일반적으로 여자가 어릴 때에는 아계를 주로 하고, 성년이 되면 아환으로 고쳐 빗었다. 출가할 날이 되면, 다시 젊은 부인의 상투로 고쳐 빗었는데, 만일 결혼할 연령이 지났는데도 출가하지 않으면 환으로 빗을 수는 있으나, 계로 빗을 수는 없었다.²⁹⁾ 아환, 아계는 여성의 미혼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시였다.

당대 시인 두보는

“至老雙髻只垂頸, 野花山葉銀釵并”(늙도록 쌍

환을 하고 고개 뒤로 넘겼네,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은비녀를 꽂은 것 같구나)

라고 쌍수환계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至老雙鬟只垂頸”라 한 것은 당조 여자가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지 않고 “雙鬟垂頸”했다는 것으로, 쌍鬟이 미혼을 상징한 풍속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녀가 그러한 모양을 보편스레 하는 것은 그것을 마치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³⁰⁾

따라서, 청동용이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샤프쿠노프의 견해는 일단 보류되어야 한다. 당시 관리는 모두 남자였고, 쌍계를 한 인물들은 젊은 미혼녀, 시종, 궁녀, 악기, 어린 사내 아이 등이었다. 관리로서 관모를 쓰지 않고, 쌍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유(襦), 상(裳), 포(袍), 대(帶)

청동용은 둥근 깃(圓領)의 저고리(襦)와, 길이가 발등까지 오는 긴 치마(裳)를 입고, 포백대(布帛帶)를 가슴 아래에서 매어 길게 늘어뜨렸다. 포(袍)의 형태는 소매가 넓은(寛袖) 대임(對衽)의 직령포(直領袍)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청동용이 착용한 유(襦), 상(裳), 포(袍), 대(帶)는 당말 오대 혹은 송, 금 시기 여인의 대표적 의복 양식인 하이웨이스트(High Waist)의 실루엣(Straight Silhouette)을 보여준다.

3. 운견(雲肩)

청동용이 착용한 복식 중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포 위에 구름 모양으로 어깨를 덮은 것이 있는데 이는 ‘운견’이라 하는 것이다. 청동용이 착용한 운견의 형태는 ‘사합여의식(四合如意式)’ 혹은 ‘사합운식(四合雲式)’이라 하여 네 부분이 합하여져 여의 혹은 구름 모양을 이룬 것이다. 대임의 포에

붙어 있으며, 앞이 터진 전개형(前開型)이고, 뒷쪽 팔 부근의 운견의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다.

선행 연구와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운견의 기원, 역사적 변천 양식, 심미성과 기능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① 기원—피견(披肩)과 운견(雲肩), 가합(賈合)

운견은 원래 고대 북방 민족의 어깨 장식이었고,³¹⁾ 그 원형을 어깨를 두른다는 의미의 ‘피견(披肩)’에서 찾을 수 있다. 피견의 본명은 帚이다. 許慎의 『說文』에 “𦥑, 繞領也”라 하였고, 段玉裁注에 “『方言』繞衿爲之𦥑”이라 하였으며, 『黃雅』本之에 “繞領, 帚, 𦥑也”라 하였다. 衿은 領의 古字이다. 領은 劉熙가 “總領衣體爲端首也”라 하였으며, 繞領이란 領을 둘러 감는 것, 혹은 어깨에 두르는 것을 말한다.

하남(河南) 낙양(洛陽) 소구촌(燒溝村)의 서한묘(西漢墓) 중 여와(女媧)와 복희(伏羲)의 벽화상에서 어깨에 한 쌍의 피견을 두른 여와의 형상을 볼 수 있다.(그림12) 周汛, 高春明은 이 피견을 후대 운견의 전신³²⁾이라 한 바, 운견의 기원은 피



〈그림12〉 피견을 두른 서한(西漢) 부녀(여와)

출처 : 『中國歷代婦女裝飾』

河南 洛陽 西漢卜千秋墓 壁畫

30) 周峰 編, 앞 책, p.442.

31) 李廷芝 主編, 앞 책, p.126.

32) 周汛, 高春明, 앞 책, p.232.

견에서 비롯되었다. 여와와 복희는 중국 천지창조 설화에 나오는 시조신이다. 제작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시조인 단군성조의 천진(天眞)(그림13-①, ②)에서도 어깨를 두른 피견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①



②

〈그림13〉 단군성조 천진(天眞)

출처 : ① 서울 사직단 소장 정부지정 표준 단군 영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p.65
② 전북 이리시 동산동 천진전 소장. 광복때
이시영이 만주로부터 가져온 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p.75

산동(山東) 기남(沂南) 동한묘(東漢墓)에서 출토된 화상석(畫像石) 중 제(齊)의桓公(桓公)상에도 깃과 어깨에 피견이 둘러져 있으며, 이와 유사한 도상이 감숙(甘肅) 주천(酒泉) 진묘(晋墓)의 벽화 중 서왕모(西王母)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당시의 풍습을 알려준다.(그림14) 수, 당시기의 부녀종 피견을 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다만 무기(舞妓)의 어깨에 이러한 장식을 볼 수 있다. (그림15)

운견과 더불어 같은 피견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요(遼), 원(元) 시기 습용한 '가합(賈合)'과 청대
(清代)의 '피령(披領)'이 있다. 가합은 금초(錦貂)



〈그림14〉 피견을 두른 진 16국(晋十六國) 부녀(서왕모)

출처 : 『中國歷代婦女裝飾』 p.233.

甘肅 酒泉 東晉 十六國墓 壁畫

〈그림15〉 섬서(陝西) 서안(西安) 당묘(唐墓) 출토
도용의 피견(披肩)

출처 : 『中國歷代婦女裝飾』 p.236.

로 만들며 형제는 기(箕)와 같고, 양 가장자리가 침예한 모양이다. 요대(遼代)에 이미 있었고, 원대(元代) 회화자료에서 볼 수 있다.(그림16)³³⁾ 청대(清代)의 피령(披領 ; 그림17)은 가합의 유체를 이은 것으로 보인다. 요, 금, 원, 청이 모두 북방민족 계열이기 때문이다.³⁴⁾

33) 周錫保, 앞 책, p.361.

34) 周錫保, 앞 책, p.333.



〈그림16〉 원대(元代) 가합(賣舍)을 두른 무관
출처 :『中國古代服飾史』 p.361.



〈그림17〉 청대(清代)의 피령(披領)
출처 :『中國古代服飾史』 p.493. 肅
孝淑睿皇后(仁宗嘉慶后) 像

② 운견의 시대적 변천 양식

가. 수(隋), 당(唐), 오대(五代)

사합여의식 문양이 칠기, 동기, 벽돌, 도자기, 견직물 등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대 이후로

보이나, 어깨에 두르는 것으로 사합운식 운견의 등장은 수대 돈황벽화의 관음신상에서 찾을 수 있다.

당대의 운견은 돈황벽화의 토번 귀족 부녀의 형상³⁵⁾과,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송자천왕도(送子天王圖)〉 중 고계(高髻), 성장(盛裝)한 신녀(神女)의 모습(그림18)에서 일례를 볼 수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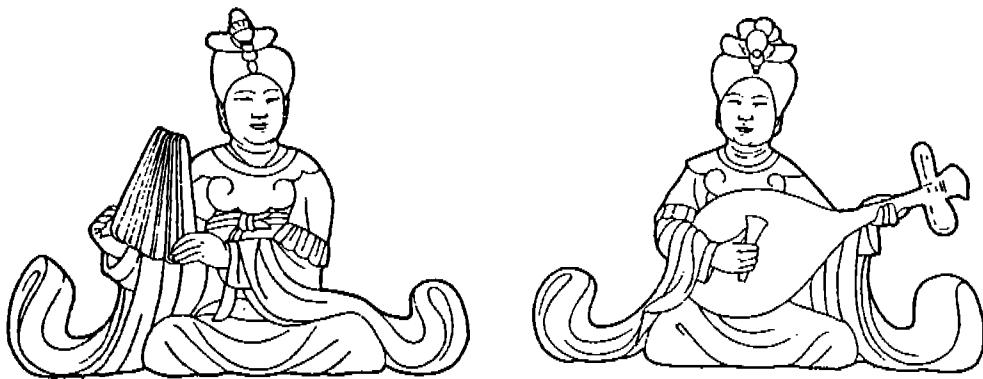
〈그림18〉 송자천왕도(送子天王圖) 중 운견을 한 신녀
출처 :『中國歷代婦女裝飾』 p.233.



〈그림19〉 남경(南京) 우수산(牛首山) 남당(南唐)
이변(李昇) 묘 출토의 여무기
도용(女舞伎陶俑)의 운견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313.

35)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增訂本, 商務印書館, 1992, p.490.

36) 周汎, 高春明, 앞 책, p.232.



〈그림20〉 사천(四川) 성도(成都) 전촉(前蜀) 왕건(王建) 묘 석관(石棺)에 부조(浮雕)된 운견을 착용한 악기(樂伎)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p.320.



〈그림21〉 왕건묘 벽화에 묘사된 운견을 착용한 무기(舞伎)
출처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 (隋唐五代部分)』 p.216.

오대 시기에 이르면 실제적인 악기, 무녀의 운견 착용 모습이 보여진다. 남경(南京) 우수산(牛首山) 남당(南唐) 이변(李昇) 묘 출토의 여무기도용(女舞伎陶俑; 그림19)과, 사천(四川) 성도(成都) 전촉(前蜀) 왕건(王建) 묘 석관(石棺)에 부조(浮雕)된 악기(樂伎; 그림20), 그리고 왕건묘 벽화에 묘사된 무기(舞伎; 그림21)의 어깨에 사합운식의 운견이 둘러져 있을 뿐 아니라, 모두 팔의

윗부분에 소매 주름이 있고, 가슴 바로 아래에서 포백대를 매었으며, 속에 입은 저고리의 깃 모양이 등근 형태이다. 또, 쌍계한 인물도 있어 본 연구 대상인 청동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운견의 형태만 보면, 청동용의 운견은 포 위에 착용되어 앞이 트인 형식(前開型)인데, 이 점이 남당(南唐) 이변(李昇) 묘 출토의 여무기도용(女舞伎陶俑)의 운견과 비슷하며, 비록 도용의 상(袋)의 길이는 짧으나, 상의 양 옆에 트임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당 이변 묘 출토의 여무기도용(그림19)의 소매는 좁고 길고, 전촉 왕건 묘 벽화에 묘사된 무기(그림21)의 저고리의 소매는 좁고 길지만 포의 소매는 넓다. 춤추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긴 소매에 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전촉 왕건 묘 석관에 부조(浮雕)된 악기들(그림20)은 포의 소매는 넓으나, 저고리의 소매 길이는 길거나 넓지 않다. 악기 연주를 위해 편리를 배려한 때문이다. 청동용의 포의 소매는 넓으나, 저고리의 소매는 넓지도 길지도 않으며, 손은 노출되어 서류 두루말이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그림19, 20, 21의 무기, 악기들과 복식의 형태상 유사한 부분은 많으나, 청동용의 자세에서 춤을 춘다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직분을 미루어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당대 이래 무용(舞俑)과 벽화에 묘사된 기악녀(伎樂女) 중 대수의(大袖衣)를 입고 쌍환(雙鬟)을 한 것이 적지 않다. 초당(初唐), 성당(盛唐)의 가무기(歌舞伎)는 소수번령식(小袖翻領式)의 호상(胡裝)을 하고 있는데 비해 위의 대수의는 귀족 관복의 응용으로 실제로 남북조의 구제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것이다. 평상시에 입으면 행동이 불편하지만 가무기는 오히려 계속 사용했다. 李白은 그의 시에서 “翩翩舞廣袖，似從海東來”라 하여 가무기 의복을 동북지방(당시의 발해)에서 산출되는 씩씩하고 활발하게 창공을 나는 “해동청”的 모습에 비유하였다. 이후에 이로 인하여 ‘海青褶子(소매가 넓은 의복의 주름)’라 칭하였고, 원, 명시대 무대의 상으로도 사용되었다.³⁷⁾

나. 송(宋)

자주요채유 여좌상(磁州窯彩釉 女坐像; 그림 22)에서 보이는 복식은 대수(大袖) 대임(對衽)의 포 위에 운전을 두른 것으로, 적의 일습에 속한다. 제작시기는 확실하지 않아 송 혹은 금시기의 유물로 추정한다.³⁸⁾



〈그림22〉 자주요채유 여좌상(磁州窯彩釉 女坐像)
출처 :『中國古代服飾史』p.298.

다. 요(遼)

요 시기 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회화자료는 없다. 다만 요속(遼俗)에 운전과 상호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합(賈合)”이라는 것이 있었다. 가합은 양 가장자리가 예리하고, 그 모양이 기(箕)와 같은데, 반드시 금초(錦絍)로 만들어 양 어깨에 드리운 것이다. 그럼 16의 원대 가합으로 형태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라. 금(金)

금 시기 운전은 귀족 명부가 둘렀고³⁹⁾, 수(繡) 등의 장식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大金集禮』輿服下에 “又禁私家用純黃帳幕陳說，若曾經宣賜鑾輿，服御，車輿，日月云肩，龍文黃服，玉箇鞘眼之鞍，皆須更改”라는 기록이 있어 일반 가정(私家)에서는 운전에 일(日)，월(月)，용문(龍紋)을 수놓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 23 張瑀가 그린 〈文姬歸漢圖〉 중 문희(文姬)의 모습에서 반비 위에 수놓은 운전을 착용한 금대 부녀를 볼 수 있다.



〈그림23〉 문희귀한도(文姬歸漢圖) 중 문희가 착용한 운전
출처 :『中國歷代婦女裝飾』p.236.

37) 沈從文 編著, 앞 책, p.321.

38) 周錫保, 앞 책, p.298.

39) 周錫保, 앞 책, p.344.

이 운견은 앞이 트이지 않은 형식으로, 宋代 官素然의 〈明妃出塞圖〉에도 같은 모양의 것이 있다.⁴⁰⁾

마. 원(元)

원대에는 운견이 관복으로 규정되어 대부분의 귀족 남녀가 사용하였고, 연회시 특정 관복으로의 쓰임 또한 적지 않았다.⁴¹⁾ 『元史』卷七十八 志 第二十八 輿服 一 冠服制度에 “蓋肩, 制如四垂雲, 青緣, 黃羅五色, 嵌金爲之”라 하여 운견의 형제를 규정하고 있고, 楊子器의 『元宮詞』 중 “金繡雲肩翠玉纓” 및 『元氏掖庭記』 중 “帶雲肩迎風之組” 등은 원대 운견의 제작이 이미 화려한 장식에 도달했음

을 말해주는 기록들이다. 당시 운견을 두른 자는 무녀(舞女) 및 궁인(宮人)이 많았다.⁴²⁾

고궁박물관에는 직금금(織金錦)으로 만든 원대 실물 운견이 한 점 보관되어 있는데, 불상의 배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⁴³⁾

그림24에서 알 수 있는 원대 운견의 특징적인 요소는 부녀 뿐만이 아니라 귀족 남자의 관복으로도 적용되었다는 점과, 착수우임의 포나 반비 위에 착용되어 대부분 앞이 트인 전개형(前開型)인 점이다.



〈그림24〉 원대 운견착용도

출처 : ①, ②『中國古代服飾史』 p.362.

③『中國古代服飾研究』 p.439. 元世祖出獵圖

④『中國古代服飾研究』 p.442. 敦煌三三二窟壁畫

마. 명(明)

명대의 운견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청초 문인 葉夢珠가 『閱世編』에 서술한 바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⁴⁴⁾

“內裝領飾，向有三等；大者裁白綾爲雲樣，披及兩肩，胸背刺繡花鳥，綴以金珠、寶石、鍾鈴，令行動有聲，曰宮裝。次者曰雲肩。小者曰閣鬢。其繡文綴裝則同。近來宮裝，惟禮服用之，居常但用閣鬢而

40) 周錫保, 앞 책, p.349.

41) 沈從文 編著, 앞 책, p.490.

42) 周錫保, 앞 책, p.356.

43) 沈從文 編著, 앞 책, p.490.

44) 周汛, 高春明, 앞 책, p.232.

式樣亦異，或剪綵爲金蓮花，結線爲纓絡樣，扣於領而倒覆於肩，任意裝之，尤覺輕便。

(깃을 장식하는 것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큰 것은 백룡(白綾)으로 재단하여 구름 모양으로 양 어깨 및 가슴, 등에 두르고, 꽃과 새를 수놓고, 금구슬, 보석을 연결하거나, 혹은 종, 방울을 달아 움직여 소리가 나게 하였으며, 이를 이름하여 “궁장(宮裝)”이라 하였다. 그 다음의 것을 “운견(雲肩)”, 작은 것을 “각빈(閣鬱)”이라 하였다. 문양을 수놓고, 장식물을 연결한 점은 같다. 근래들어 (청 초 시기) 궁장은 오직 예복으로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각빈만 사용하며 양식 또한 다르다. 혹 채(綵)를 잘라 금련화(金蓮花)를 만들고 선을 연결하여 영락(纓絡)모양으로 하고, 깃을 덮어 어깨에 써워 임의로 장식하니 더욱 가볍고 편리함을 느낀다.)

이미 명대에 이러한 궁장, 운견, 각빈의 세 가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녀(歌章女)는 청록라채(青綠羅彩)를 운견에 그려 장식하였고, 서융(西戎), 북적(北狄)의 춤을 출 때 색이 선명한 대홍라(大紅羅), 남청(藍青) 운견을 둘렀다.⁴⁵⁾

그림25의 명대 회화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운전의 특징은 둔양이 있으며, 주로 부녀자들이 포위에 둘렀고, 유엽식 운견인 각빈이 함께 착용되기도 하였다.(그림25-④) 포는 스탠드 칼라(Stand Collar)가 달린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에 길이가 종아리까지 오는 점이 공통되는 특징이다. 웨이스트(waist) 혹은 로우 웨이스트(low waist) 위치에서 헐렁하게 포백대를 매기도 하였다. 앞이 트인 것과 트이지 않은 형식이 있었고, 대부분 부녀자들이 착용하였다.



①

②

③



④

〈그림25〉 명대 운견착용도

출처 : ①『中國古代服飾史』p.429. 仇實父畫 (四川省博物館 所藏)

②『中國古代服飾史』p.431. 齊宮珍寶麗美圖

③『中國古代服飾研究』p.464. 百科美圖

④『中國歷代婦女裝飾』p.237. 仇英 六十仕女圖

45) 周錫保, 앞 책, p.416.

사. 청(清)

명대부터 있던 궁장, 운견, 각빈이 더욱 화려해지며 채(彩)를 잘라 연화형으로 만들고 영락을 연결하고, 주변에 술을 드리웠다. 한족 신부가 결혼할 때 이것을 둘렀다. 궁장은 오직 예복으로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각빈만 사용하였는데, 양식 또한 달랐다. 텔실을 달아 만든 것은 광서(光緒 : 청 덕종의 연호 : 1875-1908) 중기 이후에 생겼다.

광서말, 강소성 소주와 상해의 부녀들은 어깨까지 계를 내렸는데 상투로 인한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텔실을 사용하여 운견을 모방하여 비교적 작은 운견을 짰다.⁴⁶⁾

사합운식의 운견 위에 유엽식 운견, 즉, 각빈을 두른 모습을 회화자료에서 풍부히 볼 수 있다.(그림26) 각빈은 종종 단독으로 착용되기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26> 청대 운견착용도

- 출처 : ①『中國歷代婦女裝飾』p.236. 禹之鼎 女樂圖
 ②『中國歷代婦女裝飾』p.237. (天津楊柳青清大年畫)
 ③『中國古代服飾研究』p.498. 燕瘦怡情圖
 ④⑤『中國古代服飾研究』p.513. 雍正行樂圖

(그림26-④) 역시 운견 위로 포의 스탠드 칼라(stand collar)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포의 길이는 종아리까지 오며 전체적인 외관은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이다. 그림27은 청대 채수운견(彩繡雲肩) 실물이고, 그림28은 옷 위에 꾸매어 붙인 운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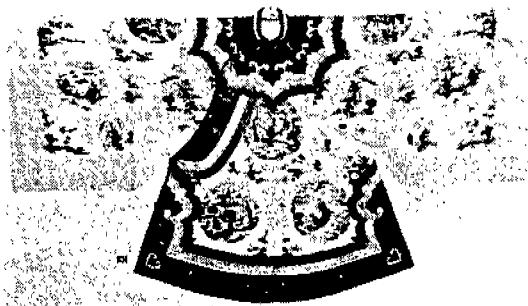
청동용이 착용한 운견은 ‘사합여의식(四合如意

式)’ 혹은 ‘사합운식(四合雲式)’이라 하여 네 부분이 합하여져 여의 혹은 구름 모양을 이룬 전개형(前開型)이다. 명, 청 시기 운견은 공통적으로 스탠드 칼라(Stand Collar)의 포 위에 착용되었고, 원대의 운견은 착수교임의 포 위에 착용된 공통된 특징이 있어, 원, 명, 청 시기는 운견의 양식상 청동용의 운견과는 거리가 있다. 당, 오대의 유물(그

46) 周錫保, 일 책, p.486.



〈그림27〉 청대 채수운건(彩繡囊肩) 실물
출처 :『中國歷代婦女裝飾』p.238.



〈그림28〉 옷 위에 꿰매어 볼인 청대 운건
출처 :『中國歷代婦女裝飾』p.238.

립18-21)과, 송 혹은 금 시기로 추정하는 자주요채
유 여좌상(磁州窯彩釉 女坐像; 그림22)에 보이는
운건과 유사한 양식이다.

③ 운건의 심미성과 기능성

무기, 악기는 미관을 목적으로 운건을 둘렀으나, 일반 부녀들은 장식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피견을 이용하였다. 고대 부녀는 한벌의 옷을 제작할 때, 경비가 변변치 못하여 서민은 옷제작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나 가정환경이 빈한한 경우, 일생 중 한두벌 보잘것 없는 의복을 구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우연

한 경사례가 있어야 한벌 해입었고 예가 끝나면 벗어 거두었다. 이러한 의복은 많은 문양을 수놓았다는 이유로 평상시에는 자주 세탁할 수 없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운건을 받치면 깃 주위는 모발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페어서 세탁하기 편리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아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하였다.⁴⁷⁾ 청(清) 尤侗의 『咏雲肩』이라는 시(詩)에

“宮裝新剪彩雲鮮, 裹娜春風別樣妍, 衣繡蝶兒幫綽綽, 髮拖燕子尾涎涎”

(궁장이 전체의 운모양을 더 선명하게 하니, 봄 바람처럼 부드럽고 하늘하늘하여 색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옷에는 나비를 수놓아 여유를 보이고, 제비꼬리처럼 늘어뜨린 빈모가 맵살스럽다.)

한 것은 운건의 미관과 수계(垂髻)의 오염을 방지함을 묘사한 것이다.⁴⁸⁾

또한 원, 명, 청 시대에는 무늬가 있는 자기, 병과 등근 용기의 견부(肩部)에 운건식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고(그림25-④, 그림26-① 의자 장식 참조), 유엽식 운건은 강희(청 성조 : 1662-1722의 연호) 때의 단색 유약을 바른 내복존(萊菔尊)의 견부, 족부의 장식과도 비슷하다.⁴⁹⁾ 자기(瓷器)상의 예술양식이 의복의 형태와 상호 영향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

④ 운건착용 인물들의 특징

여와와 복회, 그리고 단군성조 천진 등 시조신과 신녀의 형상에서 운건의 전신인 피견이 고찰되었다. 원래 운건은 북방민족의 어깨장식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한족 부녀들도 일반적으로 착용하였다. 사합 운식의 운건을 착용한 인물로는 수, 당, 오대를 거치며 악기, 무기 등의 궁녀가 많았고, 금대에는 규정을 정하여 귀족 명복가 착용하게 하였다. 원대에는 귀족 부녀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관

47) 周汎, 高春明, 앞 책, p.232.

48) 周錫保, 앞 책, p.486.

49) 沈從文 編著, 앞 책, p.490.

복의 일부로 착용하였다. 명, 청 시기에 이르러서는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실용적 목적을 겸해 널리 이용되었다.

4. 소매주름

양 어깨의 운견이 끌나는 부분의 소매를 좁은 끈으로 묶고 그 아래를 주름잡은 것이 보인다. 일찌기 東晉(A.D.317~420)시기 顧愷之의 〈洛神賦圖〉(그림29)와 初唐시기 敦煌 66窟의 “十六觀”(그림30)에서 유사한 형상을 볼 수 있고, 오대시기 무용(舞俑)과 벽화중의 기악녀(伎樂女)의 의복에 유사한 주름이 있다.(그림19-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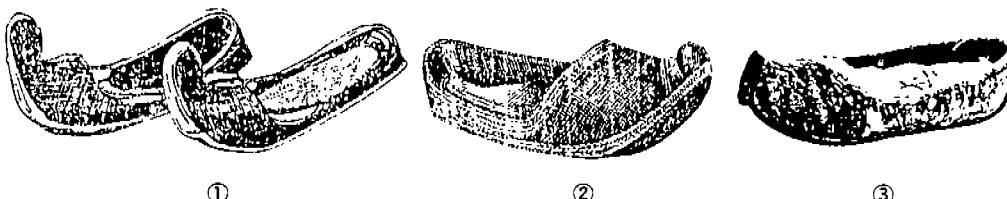
〈그림29〉顧愷之의 〈洛神賦圖〉
출처 :『中國古代服飾史』p.161.



〈그림30〉敦煌 66窟의 “十六觀”
출처 :『中國古代服飾史』p.203.

5. 리(履)

리는 고두리(高頭履)처럼 발끝이 올라가 발바닥이 활모양(弧狀)으로 굽어 올라간 형태이며 발끝이 둘로 쪼개져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남북조 아래 수, 당, 오대, 송, 명 시기에 착용된 예가 보이며, 당 및 일본 나라조의 유물에서 실물이 발견되었.(그림31)



〈그림31〉당 및 일본 나라조 고두리(高頭履)

출처 : ①『中國古代服飾史』p.215. 唐 麻布鞋

②『中國古代服飾史』p.215. 新疆 吐魯番 阿斯塔那 唐墓 출토 실물

③『奈良朝服飾の研究』p.94.

III.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청동용의 발양과 복식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청동용의 발양은 크게 쌍계에 속하며, 사계(四髻), 쌍수환계(雙垂鬟髻), 관계(弁髻) 등이 복합된 것으로, 두발이 좌우 두 갈래

로 나뉜 뒤, 다시 각각 상하로 나뉘어 윗부분은 환(鬟)의 가운데를 묶어 두개의 소환(小鬟)을 만들고, 아랫부분은 양 귀 뒤에서 환으로 묶어 드리운 관계(弁髻) 형태의 쌍수환계(雙垂鬟髻)이면서 상투(髻) 수로는 사계(四髻)가 된다.

의복으로는 소매가 길지 않은 단령의 유와 발등

까지 오는 길이의 상을 입고 가슴 바로 아래 위치에서 포백대를 매었으며, 그 위에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대수대임포를 입었다. 포 위에 어깨에 두른 사합운식 운견과 소매 부분의 주름이 특징적이다. 신은 고두리처럼 발끝이 올라가 둘로 갈라진 형태이다.

1. 청동용의 제작 시기

청동용의 발양인 쌍계와 쌍환이 혼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머리모양은 남북조 이후 역대 시녀, 비복계층의 고정 발식이었고, 당대에 이르러 쌍계, 쌍환은 절정을 이루었다. 청동용이 착용한 단령유(團領襦), 장裳(長裳), 대수대임(大袖對衽)의 직령포(直領袍), 가슴 아래에서 매어 늘어뜨린 포백대(布帛帶)는 당말 오대 혹은 송, 금 시기여인의 대표적 의복 양식인 하이웨이스트(High Waist)의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을 보여준다. 사합운식(四合雲式)의 전개형(前開型)

운견은 당, 오대, 송, 원, 금 시기에 나타나는 양식이다.

주변국의 유물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오대십국시기(A.D.907-960) 남당과 전촉의 유물에서 청동용 복식의 특징적인 요소인 소환이 있는 쌍계, 사합운식 운견, 소매 주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얼굴 표정을 통통하고 풍만하게 묘사한 기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의복의 실루엣 등도 이 시기의 특징과 일치한다. (표1 참조)

오대십국시기 남당과 전촉은 비교적 전쟁이 적어서 형국이 편안했고, 당 현종과 회종이 두 차례 사천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촉으로 피난해 들어간 중원의 예술가가 매우 많았는데다가 촉은 수공업이 충분히 발달했고, 금수(錦繡)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으며, 전란으로 인한 파괴도 비교적 적어 이 유물들이 당대 중원의 풍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십국(十國) 중 전촉을 건국한 왕건의 사망년도가 918년, 남당을 건국한 이변이 사망한 난도가 942년이므로 각 유물들은 왕들이

<표1> 복식 고찰을 통한 청동용의 제작시기 추정

服 種	유사한 양식이 나타나는 시기										
	五代	南北朝	隋	唐	十國	宋	遼	金	元	明	清
雙替, 雙裝 ⁵¹⁾ 혼합된 머리모양											
團領襦, 長襦 大袖對衽의 直領袍 High Waist Straight Silhouette											
直領袍 위에 착용된 前開型의 四合雲式 袖肩											
소매주름											
履											
전체가 유사한 유물											

50) 沈從文 編著, 앞 책, p.321.

사망한 직후 혹은 부장용 경우 그 이전의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동용의 제작 시기를 10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동용의 발굴지인 추카노프카강 유역이 연해주 지역에서 후대의 문화층을 포함하지 않고, 단일층으로 형성된 발해 크拉斯키노 성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이 청동용 역시 발해의 유물로 볼 수 있다고 한 샤프쿠노프의 주장이 타당하고, 특히 크拉斯키노 성지가 발해의 후기 유적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청동용을 발해 후기 내지는 발해 말기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해의 멸망 연도가 926년이므로 발해 멸망 후 세워진 동단국(東丹國)의 유물로 볼 수도 있다.

발해는 오대십국 중 후량(後梁), 후당(後唐)과 수차례 조공외교 형식의 복식교류를 가진 바 있다. 서기 909년 3월, 발해가 후량에 초서피(貂鼠皮), 응피(熊皮)를 조공하였고⁵¹⁾, 924년 5월 후당은 발해에 금채(錦綵)를 주었다.⁵²⁾ 925년 2월 후당에게 세포(細布), 초서피 이불 한장, 요 여섯장(貂鼠皮被一褥六), 발(髮), 화(靴), 혁(革)⁵³⁾을, 926년 4월에 호피(虎皮)를 조공하였다.⁵⁴⁾(표2 참조)

〈표2〉 발해-오대간 복식교류 내용⁵⁵⁾

서기	발해 → 오대	
909년 3월	後梁	貂鼠皮, 熊皮
925년 2월	後唐	細布, 貂鼠皮被一褥六, 髮, 靴, 革
926년 4월	後唐	虎皮

서기	오대 → 발해	
924년 5월	後唐	錦綵

51) 『冊府元龜』卷972(梁太祖開平…三年三月 渤海王大謹讓差其相大誠謁朝貢 進兒女口及物貂鼠皮熊皮等)

52) 『五代會要』卷30 渤海(後唐同光二年正月 造王子大禹謹來朝 五月 又造王子大元謹來朝 莊宗賜金絲以遣之…)

53) 『冊府元龜』卷972(後唐莊宗同光…三年二月 渤海國王大謹讓遣使裴璆 貢人參松子 昆布 黃明 細布 貂鼠皮被一褥六 髮 靴 帛 奴子二)

54) 明宗天成元年四月渤海國王大謹讓使大陳林等一百一十六人朝貢 進兒口 女口各三人 人參 昆布 白附子及虎皮 等 『冊府元龜』卷972

55) 指稿, “渤海(698-926)의 服飾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93, p.14.

전족은 후에 후당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이러한 복식 교류의 기록들이 위에서 고찰한 청동용 복식과의 유사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청동용의 제성격

청동용이 손에 서류 두루마리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나, 분명히 관리상은 아니다. 당시 관리는 모두 남자였고, 쌍계를 한 인물들은 젊은 부녀, 시종, 궁녀, 악기, 어린 사내 아이 등이었다. 더우기 쌍계, 쌍환은 미혼을 상징한 풍습이었으므로, 관리로서 판모를 쓰지 않고, 쌍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사합운식의 운견이 원대(元代)에는 귀족 남자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고는 하나, 착수교임의 포위에 착용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청동용의 대수 대임 포 위에 착용된 전개형의 운견과는 다르다. 사합운식의 운견은 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녀자들이 착용하였으며, 특히 악기, 무기, 궁녀 등의 여성이 많다. 지물(持物)로써 직분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쌍계, 쌍환, 운견, 상 등의 차림으로 보아 미혼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식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사한 유물이 오대십국시기 전족 왕건묘와 남당 이변묘에서 출토된 악기, 무기상이므로 이에 비추어 청동용의 직분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3. 제 언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쌍계와 운견에 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쌍계(雙髻), 아계(丫髻 : 丫頭, 鴉頭), 아

환(丫鬟 : 丫環, 鴉鬟), 쌍아계(雙丫髻 : 雙髻丫, 雙角髻, 雙童髻, 總角), 쌍수계(雙垂髻), 쌍수환계(雙垂鬟髻 : 雙鬟後垂), 쌍환고계(雙鬟高髻), 쌍환망선계(雙鬟望仙髻), 관계(弁髻 : 冊髮) 등에 관한 정확한 형태와 명칭의 정의, 시대·변천에 따른 각 발양의 상징적 의미, 시대·변천에 따른 윤견의 양식 변화와 윤견 착용 인물들의 특성 등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유물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사진상으로만 고찰함으로써 정확한 관찰이 어려웠다. 미비했던 점은 확인되는 대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비교 연구가 가지는 난점이 그러하듯이 본 연구 역시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교됨으로써 주로 중국 자료에 치우쳐 연구되었다. 횡적으로 통일신라, 일본, 중앙아시아 쪽이 자료의 부족으로 폭넓게 비교되지 못하였다.

또한 비교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주변국의 유물에 비추어 추측할 뿐 발해 자체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明史』
- 『五代會要』
- 『元史』
- 『冊府元龜』
- 『高句麗古墳壁畫』, 北韓考古學術總書 ⑧, 朝鮮畫報社, 1986.
- 『辭海』, 中華書局(香港)有限公司 上海辭書出版社, 1989.
- 『世界文化史大系』第17卷 中國 Ⅲ, 東京: 角川書店, 昭和35年.
- 關根真隆,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昭和49年.
- 金維諾 編著, 『古帝王圖』,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82.
- 陝西省博物館 編, 『隋唐文化』, 香港: 中華書局, 1990.
-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增訂本, 商務印書館, 1992.
- 王承禮 著 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東洋文庫, 昭和45年.
- 李廷芝 主編,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 周峰 編,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隋唐五代部分)』, 北京燕山出版社,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6.
- 周汛, 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學林出版社 /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1991.
- 編輯部,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中華民國70年.
-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교양 국사총서, 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E.V. Shavkunov 저, 송기호 역, “沿海州의 발해문화 유적”, 『白山學報』 第30, 31合號, 1985.
- E.V. Shavkunov, L.E. Semenichenko 저, 송기호 역, “소련 연해주의 발해문화 연구”, 『韓國史論』 23, 서울대 국사학과, 1990.
- 權桂淳, “우리나라 女子髻樣考”, 『효성여대 연구 논문집』 5, 1966.
- 김민지, “渤海(698-926)의 服飾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93.
- 김민지 · 이순원,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 – 정효공주묘 벽화를 중심으로 –”,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生活科學研究』 제18권, 1993. 6.
- 金正子, “우리나라 女性의 髮樣에 대한 研究”, 『服飾』 第6號, 1982.
- 表貞龍,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關한 研究”, 『考古美術』 136, 137, 1976.
- 洪那英, “韓 · 中 女性服飾의 比較研究 – 帚를 中心으로 –”, 『服飾』 第13號,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Balhae Dynasty(Ⅱ)
—Focused on the costume of a bronze statue
excavated in the Maritime Provinces of
Russia—

Minjee Kim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Design
KiJeon Women's Junior College.

This study is my second trial to examine the costume of Balhae Dynas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costume of a bronze statue excavated in the Maritime Provinces of Russia. The bronze statue is in the custody of Vladivostok Museum. E.V. Shavkunov, a Russian archeologist, reported it a statue of official of Balhae dynasty in the 7-8th century. Judged his report lack of basis, I suggest new opinion on sex, age, married or unmarried, social position, manufactured time of the statue by comparative study on the costume, hair-style, and appearance of the statue with around nations' antiquities.

Hair-style of the statue is basically included in Ssangge(雙髻), and complexed style of

Sage(四髻), Ssangsuahuange(雙垂鬟髻), and Guange(丫髻). Generally, Ssangge is a hair style of children, unmarried women, court ladies, dancing girls, and instrument player (lady)s'.

The statue wears round-necked blouse(圓領襦), long skirt(裳), broad fabric belt at high waist, broad sleeve and confront collar coat(大袖對衿袍), cloud shaped shawl(雲肩) and risen tip shoes(高頭履). The figure of statue is described plump. The statue shows straight silhouette and high waist, typical style of Tang (唐), Uddai(五代). The most characteristic factor is cloud shaped shawl(雲肩). Cloud shaped shawl(雲肩) was originally one of the northern race's shoulder ornaments. From the view of Comparative study, the antiquities of NamDang(南唐) and JunChock(前蜀) are similar to this statue.

Besides, Tsukanovka river, where the statue was excavated, is close to Kraskino ruins of a castle, formed single cultural layer of Balhae Dynasty and are relics of the latter period of Balhae Dynasty. Therefore, this statue is assumed to have been manufactured at the last years of Balhae Dynasty and to be a figure of unmarried woman, not official.